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3 Serial No.141 2016.6. 65~84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6.34.3.65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Changes in the Time Spent on Housework of Married Couples

: Analysis of Korea Time Use Survey from 2004 to 2014

김소영(Soyoung Kim)[1*], 진미정(Meejung Chin)[2]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longitudinal changes for ten years from 2004 to 2014 in time spent on housework by married couples who had a preschooler as their first-born child. It also sought to figure out how much of such temporal changes were attributable to differences in the means on associated factors as well as to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r slope of such factors. A total of 9,668 time diaries from the Korean Time Use Survey were us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ouple's weekly work hours, wife's relative income, couple's education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time spent on housework of husbands and wives. Results from descriptive statistics, regression and decomposition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women decreased, while men increased their time doing housework. Second, weekly work hours of husband and wife were related to their time doing housework in every year surveyed. Third, wife's relative earnings and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affected wife's time doing housework more than husbands', whereas couple's education had stronger effects on husbands than wives. However, such influence was apparent on a certain survey year, and then disappeared in another, or became stronger or weaker longitudinally. Fourth, the temporal decrease in wife's housework time and increase in husband's housework time were attributable to social and cultural changes such as reduced working hours, rising female incom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evalence of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Findings suggest that the trend in spending time on housework is expected to continue, and provide a timely policy implications to facilitate the change.

▲주제어(Key Words) : 가사노동시간변화(change in housework time), 근로시간(work hours), 아내 소득비중(wives' relative income), 교육수준(educational background),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

Ⅰ. 서론

가사노동은 가족 안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친숙한 노동이다. 부부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는 부부관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며(S. N. Davis & T. N. Greenstein, 2013), 사회적 환경 변화가 가족 내의 역할수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82-10-7738-9479, E-mail: syoungkim@snu.ac.kr

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반사경이 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가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결과인데, 서구에서 이루어진 종단연구들은 가사노동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K. Fisher, M. Egerton, J. Gershuny, & J. Robinson., 2007; J. Gimenez-Nadal & A. Sevilla, 2012; L. C. Sayer, 2005). 서구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40여년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 반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J. L. Hook, 2006).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1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서구와 유사한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패턴을 발견하였다(Y. Shin, J. Ki, S, Woo, & J. Yoon, 2014; Y. Song, 2011). 이처럼 성별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가사노동시간에서의 변화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견인한 요인들은 무엇이며, 종단적으로 이 요인들의 특성이 달라진 것과 영향력이 달라진 것이 변화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만약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의 방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추세가 이어지도록 독려하고,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단서를 얻으려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가사노동시간이 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시간가용성관점, 상대적자원관점, 성역할태도관점을 사용하였다(S. M. Bianchi, M. A. Milkie, L. C. Sayer, & J. P. Robinson, 2000; S. Coltrane, 2000; K. Eun, 2009; S. Heo, 2008; J. L. Hook, 2010; S. Kim & E. Kim, 2007). 이 이론적 관점들에 따르면, 시장노동시간이 결정된 후에 가용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부부간에 가사노동시간이 결정되고, 부부가 가사노동에 사용할 시간을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자원, 즉 교육수준이나 수입이 높은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최소화하도록 타협을 보게 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K. L. Brewster & I. Padavic, 2000; B. A. Shelton & D. John, 1996), 이때 평등한 성역할 태도는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들은 부부관계 내의 미시적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보다 큰 사회적 맥락의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탐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왜 성별에 따라 가용한 시간이 다른지 혹은 부부간의 가용한 시간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사회적,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종단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전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며,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나타날 때, 가용한 시간, 소득,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S. M. Bianchi et al., 2000; R. Crompton, M. Brockmann, & C. Layonette, 2005; O. Sullivan,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부 간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가운데 시간가용성관점, 상대적자원관점, 성역할태도관점에서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조명하되, 각 관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들, 즉 근로시간, 아내의 상대적 소득비중,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시간과의 관련성이 종단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 영향의 강도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시간가용성관점과 상대적자원관점은 개인의 시간이나 자원이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부간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 Evertsson, 2014; T. N. Greenstein, 1996; A. Kroska,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부부를 단위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처럼 부부단위로 재구성한 독립변수의 영향이 달라지는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가사노동시간 배분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장노동에 사용할 시간이 먼저 결정된 후에 남은 시간이 가사노동시간에 배분되는 특성상,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가사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주생계부양자이면서 장시간 근로관행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주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취업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맞벌이 가구에서도 주중과 주말의 가사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J. Hyun, 2014; S. Lee & H. Lee, 2011; Y. Song, 2011). 종단적으로는 2004년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주5일근무제 시행이 확대되

면서 주말에 가사노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M. Ji & M. Cho, 2014),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추세뿐만 아니라 관련요인에 있어서도 주중과 주말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를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관련요인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분석 결과를 통해 주중에도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노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수요와 압박이 크고 아버지들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S. M. Bianchi et al., 2000; L. Craig & M. Bittman, 2008), 부부간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근로시간, 아내의 소득비중,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시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첫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부부에게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관찰된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이끌어 온 동인이 남성과 여성, 주중과 주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러한 요인의 변화는 어떠한 거시적 맥락의 변화에 기인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각 가구가 처해있는 다양한 맥락에 맞춤화된 정책적인 개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첫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남녀(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04년, 2009년, 2014년에 아내와 남편의 주당근로시간, 아내의 소득비중, 부부의 교육수준,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2004년과 2009년 사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서 발생한 차이는 아내와 남편의 주당근로시간, 아내의 소득비중, 부부의 교육수준,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서 조사연도간 발생한 평균의 차이와 영향력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구내에서 부부가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함께 결정되고, 이러한 시간배분 결정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시간가용성관점, 상대적자원관점, 성역할태도관점을 제안하였다(S. Coltrane, 2000; S. N. Davis & T. N. Greenstein, 2013; C. West & D. H. Zimmerman, 1987). 시간가용성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리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결국에는 부부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게 된다(J. L. Hook, 2006). 시장노동시간이 가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지만, 배우자의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S. Coverman, 1985).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시간가용성관점의 가설은 국내외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S. M. Bianchi et al., 2000; K. Eun, 2009; S. Heo, 2008).

상대적자원관점은 합리성과 상대적 자원의 수준을 강조한다. 부부가 가사노동에 배분하는 시간은 협상의 결과이며,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타협을 보게 된다는 가설이다(J. Brines, 1994). 즉,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이나 소득을 가진 배우자는 이러한 자원에서 파생되는 권력을 가지고 가사노동을 최소화하도록 협상을 하게 된다(S. M. Bianchi et al., 2000; B. A. Shelton & D. John, 1996). 이 관점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적인 여성은 가사노동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결정하는 아내의 소득은 상대적자원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된다. 선행연구는 아내의 소득비중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S. M. Bianchi et al., 2000; J. Brines, 1994; R. Connelly & J. Kimmel, 2009; K. Eun, 2009; S. Heo, 2008), 아내의 소득비중이 클수록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S. M. Bianchi et al., 2000; S. Gupta, 2007; S. Gupta & M. Ash, 2008; S. Kim & E. Kim, 2007).

S. Gupta(2007)는 이처럼 여성의 상대적 소득비중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강한 예측변수가 되는 이유는 여성이 자신의 소득으로 가사노동을 아웃소싱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역할태도관점은 성역할 태도가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데, 개인의 성역할 태도는 사회화의 산물로서 시대효과를 나타내고(K. L. Brewster & I. Padavic, 2000; S. N. Davis & T. N. Greenstein, 2009), 사회의 정책이나 제도, 경제적 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Y. Cha & S. Thébaud, 2009; S. Kim, 2015; S. Won, 2014)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한 인식을 키우고 성고정관념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높은 교육수준은 평등한 성역할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 I. Bolzendahl & D. J. Meyers, 2004; K. L. Brewster & I. Padavic, 2000; A. N. Bryant, 2003). 이 관점에 따르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가사노동을 적게 하고, 반대로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은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한다(J. Baxter, B. Hewitt, & M. Haynes, 2008; S. M. Bianchi et al., 2000; M. Evertsson, 2014; M. Y. Kan, 2008; M. Nordenmark, 2004). 부부간 성역할 태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들은 아내보다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를 통해 가사노동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고하면서(M. Evertsson, 2014; T. N. Greenstein, 1996),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이라도 남편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도록 설득하기는 어려우며, 공평한 가사노동분담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2. 가사노동시간 변화 관련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시간가용성관점, 상대적자원관점, 성역할태도관점은 개인의 시간, 자원, 성역할 태도가 부부간 가사노동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큰 사회적 맥락이 그러한 미시적 의사결정구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들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함에 있어 거시적인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S. M. Bianchi et al., 2000; S. Coltrane, 2000; M. Fuwa & P. N. Cohen, 2007). 거시적인 맥락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얻게 되는 가사노동 성별분업의 혜택이 달라지거나 부부간 협상조건이 바뀔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자원이 가사노동시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J. L. Hook, 2006, 2010). 부부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시간의 공평한 배분으로 이어질지 여부 또한 사회적 맥락이 그러한 성역할 태도를 따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지 아니면 힘들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태도에 맞게 행동하기가 쉬운 반면,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행동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이나 지향성이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도 있다(M. Fuwa, 2004).

여성의 취업은 가구내 가사노동시간의 재분배를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안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자원으로 가사노동의 시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아웃소싱하거나 가사노동의 표준을 하향조정하여 시간수요를 줄이는 전략(P. N. Cohen, 1998), 또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얻은 소득은 가사노동의 아웃소싱에 사용되기도 하고, 남편과의 협상에서 아내의 협상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작용하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게 할 수 있다(S. M. Bianchi et al., 2000; M. Bittman et al., 2003; S. Coltrane, 2000). 그러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게 된 아내의 근로시간과 소득이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시적 변화임은 분명하지만, 종단적으로 이 두 요인의 영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근로시간과 아내의 상대적 소득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연구들로부터 사회 또는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에 따라 두 변수의 영향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R. Crompton et al., 2005; M. Fuwa, 2004; C. Geist & P. N. Cohen, 2011; H. Stier & N. Lewin-Epstein, 2007).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화되었고,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성평등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J. Park, 2013; S. Won, 2014). 또한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의 월평균 임금 비율이 2000년 64.7%에서 2013년 68.1%로 소폭이나마 상승하였다(Statistics Korea, 2014). 만약 과거에 비해 한국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었고 한국사회에 평등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다면, 아내의 근로시간이나 상

대적 소득비중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에 바뀌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가사노동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동질혼의 확산으로 부부의 교육수준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C. R. Schwartz & R. D. Mare, 2005) 자원으로서의 기능은 약해지고, 오히려 양성평등한 인식을 키우고 성고정관념을 거부하도록 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이 더 부각되고 있다. 1965년부터 2003년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를 조사한 O. Sullivan(2010)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연구자는 이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고 성평등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가사노동참여를 독려하는 성역할 태도의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가사노동시간에서의 학력차이가 좁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O. Sullivan(2010)의 논의로부터 단서를 얻고, 교육수준이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문화의 효과에 대해 조사한 T. van der Lippe, J. de Ruijter, E. de Ruijter, & W. Raub(2011)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자면, 교육수준은 성역할 태도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종단적으로는 그 시점에 만연한 사회의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성역할 태도를 통해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시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개인의 성역할 태도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화뿐만 아니라 교육 또한 성역할 태도 형성의 주요 기제가 될 수 있다(C. I. Bolzendahl & D. J. Meyers, 2004; S. N. Davis & T. N. Greenstein, 2009). 따라서 개인의 성역할 태도는 거시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성역할 태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등한 성역할 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늘려주며 부부 사이에서는 공평한 가사노동분담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J. Baxter et al, 2008; S. M. Bianchi et al., 2000; M. Evertsson, 2014; M. Y. Kan, 2008), 사회의 거시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실증연구들은 주장하였다(M. Fuwa, 2004; K. Knusden & K. Wærness, 2008). 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파워가 남성과 유사한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약할 것이고, 이처럼 성역할 태도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가 약한 상태에서 여성은 자신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공평한 가사노동분담이라는 행위로 쉽게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에서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는 사회의 보편적 성역할 이데올로기 외에도 노동시장환경이나 제도 또는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S. Coltrane, 2000; R. Crompton et al., 2005). 남성이 자신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생계부양자에 대한 직장의 기대와 요구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장시간 근로문화는 남성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시간 사이의 관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출하고 남성의 고용지위가 낮아지면서 주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지위는 차츰 잠식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영향으로 남성들 사이에서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경험적 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K. L. Brewster & I. Padavic, 2000; L. T. Stickney & A. M. Konrad, 2012; A. Thornton & L. Young-DeMarco, 2001). 또한 남성의 생계부양자 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시장환경보다 안정적인 노동시장환경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경제적 의존도와 남성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 사이의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Y. Cha & S. Thébaud, 2009), 경기침체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을 떠나는 여성이 증가하고, 성별에 따른 공사영역의 이분법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전통적인 어머니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G. Berik & E. Kongar, 2013; S. Cho, 1998; D. D. Johnston & D. H. Swanson, 2006).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 1999년에 처음 실시된 생활시간조사는 5년 주기로 2014년까지 총 네 차례 조사되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한 행위를 10분 단위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일지를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작성하며, 한 사람이 이틀씩 시간일지를 작성하였다. 첫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부부를 추출하기 위해 가구원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상을 선별하고 이들 가운데 미취학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부부를 추출하였다. 아내는 25세에서 44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나, 남편의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

다. 남편이 무직인 가구는 사례수도 적고, 부부의 시간사용 패턴도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분석에는 2004년 부부 992쌍의 시간일지 3,968부, 2009년 부부 567쌍의 시간일지 2,268부, 2014년 부부 858쌍의 시간일지 3,432부를 합한 총 9668부를 사용하였다.

2. 변수의 구성 및 산출방법

1) 가사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의 '가정관리' 행동 중분류에 속하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에 사용한 하루 평균 시간(분)으로 산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주행동으로 하여 활동한 시간만을 사용하였다.

2) 주당근로시간

생활시간조사에서 주업과 부업에 사용한 시간을 합하여 산출하고, 가구 단위에서 남성의 주당근로시간을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으로, 취업여성의 주당근로시간을 아내의 주당근로시간으로 사용하였다.

3) 아내의 소득비중

부부의 월평균소득을 합한 값에서 아내의 월평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산출하여, 아내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0의 값을, 아내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0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월평균소득을 50만원 또는 100만원 단위로 범주화하여 조사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004년, 2009년, 2014년 조사자료별로 월평균소득 범주를 통일시켜 0(없음)에서부터 10(500만원이상)까지의 값을 부여한 후, 각 범주의 중앙값을 월평균소득의 연속값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연도별로 월평균소득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09년의 월평균소득은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환하였다.

4) 부부의 교육수준

개인의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과 4년제 미만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를 부부 단위로 재구성하여 부부가 모두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 부부가 모두 고졸이하의 학력, 남편은 전문대 재학 이상이지만 아내는 고졸이하의 학력, 아내는 전문대 재학 이상이지만 남편은 고졸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가구 등 4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5) 부부의 성역할 태도

생활시간조사에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매우 반대' 또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구성한 개인의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가구 단위에서 부부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부부가 모두 평등한 성역할 태도, 남편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 아내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구 등 4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6) 통제변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의 연령, 부부의 월평균소득, 자가소유, 주거면적, 직장지위(임금근로자), 직종(사무직, 전문 · 관리직, 서비스 · 판매직, 농업 · 제조 · 단순노무직)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주당근로시간, 아내의 소득비중, 부부의 교육수준,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주중과 주말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종단적으로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분석, OLS 회귀분석, Blinder-Oaxaca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해분석은 선형회귀모형을 기초로 하며, 2004년 가사노동시간의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B. Jann, 2008; Y. Shin et al., 2014).

$$Y_{2004.i} = \beta_{2004.i} X_{2004.i} + \epsilon_{2004.i}$$

$Y_{2004.i}$는 개인i의 2004년 가사노동시간, $X_{2004.i}$는 독립변수의 벡터, $\beta_{2004.i}$는 회귀식으로 추정한 계수의 벡터, $\epsilon_{2004.i}$는 오차항이다. 이 식을 사용하면 2004년과 2014년 사이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overline{Y}_{2014} - \overline{Y}_{2004} = \hat{\beta}_{2004}(\overline{X}_{2014} - \overline{X}_{2004})' + \overline{X}'_{2004}(\hat{\beta}_{2014} - \hat{\beta}_{200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Personal Characteristics (unit: frequency(%)/mean(SD))

		Women				Men			
		2004	2009	2014	F / X^2	2004	2009	2014	F / X^2
Age		31.23[a] (3.33)	32.00[b] (3.81)	33.22[c] (3.55)	F = 74.00***	33.86[a] (3.83)	34.29[a] (4.32)	35.45[b] (4.11)	F = 36.84***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 less	492 (49.6)	202 (35.6)	169 (19.7)	X^2 = 179.17***	399 (40.2)	169 (29.8)	160 (18.7)	X^2 = 101.77***
	College & more	500 (50.4)	365 (64.4)	689 (80.3)		593 (59.8)	398 (70.2)	698 (81.3)	
Gender role attitude	Traditional	306 (30.8)	172 (30.3)	189 (22.0)	X^2 = 20.69***	556 (56.0)	297 (52.4)	396 (46.2)	X^2 = 18.18***
	Egalitarian	686 (69.2)	395 (69.7)	669 (78.0)		436 (44.0)	270 (47.6)	462 (53.8)	
Employment	Employed	306 (30.9)	185 (32.6)	322 (37.5)	X^2 = 9.54**	992 (100)	567 (100)	858 (100)	
	Unemployed	686 (69.1)	382 (67.4)	536 (62.5)		-	-	-	
Weekly work hours		12.49 (21.63)	13.72 (21.37)	12.57 (19.61)	ns	54.16[a] (13.39)	53.08[ab] (15.20)	51.74[b] (13.47)	F = 6.97***
Monthly income (10,000 KW)		40.81[a] (84.04)	57.97[b] (105.05)	78.46[c] (114.44)	F = 32.19***	263.83[a] (107.66)	272.06[a] (106.14)	315.21[b] (104.68)	F = 58.48***
Employment status	Employee	225 (73.5)	155 (83.8)	274 (85.1)	X^2 = 15.04***	786 (79.2)	461 (81.3)	707 (82.4)	ns
	Employer / Self employed	81 (26.5)	30 (16.2)	48 (14.9)		206 (20.8)	106 (18.7)	151 (17.6)	
Occupation	Clerical	83 (27.1)	62 (33.5)	104 (32.3)	ns	193 (19.5)	132 (23.5)	252 (29.4)	X^2 = 35.89***
	Professional / Managers	108 (35.3)	63 (34.1)	134 (41.6)		280 (28.2)	136 (24.2)	218 (25.4)	
	Service / Sales	73 (23.9)	42 (22.7)	55 (17.1)		157 (15.8)	87 (15.4)	150 (17.5)	
	Agriculture / Laborer / Manufacturing	42 (13.7)	18 (9.7)	29 (9.0)		362 (36.5)	208 (36.9)	238 (27.7)	

*p<.05. **p<.01. ***p<.001.
1) The number of respondents are 992 couples in 2004, 567 couples in 2009, and 858 couples in 2014.
2) Superscripts (a, ab, b, c) indicate that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post-hoc Scheffé contrast.

이 식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특성효과(endowments effect)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2004년 표본의 독립변수 평균값($\overline{X}_{2004}$)과 2014년 표본의 독립변수 평균값($\overline{X}_{2014}$)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이다. 우변의 두 번째 항은 계수효과(coefficients effect) 부분으로, 독립변수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이다.

특성효과에 의한 부분은 개별 독립변수의 평균값 차이가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기여한 정도를 합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at{\beta}_{2004}(\overline{X}_{2014}-\overline{X}_{2004})' = \hat{\beta}_{1.2004}(\overline{X}_{1.2014}-\overline{X}_{1.2004})' + \hat{\beta}_{2.2004}(\overline{X}_{2.2014}-\overline{X}_{2.2004})' + \dots$$

이 식에서 $\overline{X}_1$과 $\overline{X}_2$는 각 독립변수의 평균값이고, $\hat{\beta}_1$과 $\hat{\beta}_2$는 각 독립변수의 계수이다. 따라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2004년과 2014년 사이 $\overline{X}_1$의 차이가 가사노동시간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항은 2004년과 2014년 사이 $\overline{X}_2$의 차이가 가사노동시간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계수효과에 의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별 변수의 계수 차이가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기여한 정도를 합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overline{X}'_{2004}(\hat{\beta}_{2014}-\hat{\beta}_{2004}) = (\hat{\beta}_{0.2014}-\hat{\beta}_{0.2004}) + \overline{X}'_{1.2004}(\hat{\beta}_{1.2014}-\hat{\beta}_{1.2004}) + \overline{X}'_{2.2004}(\hat{\beta}_{2.2014}-\hat{\beta}_{2.2004}) + \dot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Household Characteristics (unit: frequency(%)/mean(SD))

		2004(*N*=992)	2009(*N*=567)	2014(*N*=858)	F / X^2
Couple employment	Only husband employed	686(69.1)	382(67.4)	536(62.5)	X^2 = 9.54**
	Both employed	306(30.9)	185(32.6)	322(37.5)	
Couple's monthly income (10,000 KW)		304.63(140.91)[a]	330.03(156.49)[b]	393.68(157.89)[c]	F = 82.61***
Wife's proportion of couple income (%)		9.55(17.74)[a]	12.08(19.76)[b]	15.48(20.11)[c]	F = 22.21***
Couple education	Neither has college degree	332(33.5)	115(20.3)	85(9.9)	X^2 = 200.11***
	Both have college degree	433(43.6)	311(54.9)	614(71.6)	
	Husband has college degree, wife not	160(16.1)	87(15.3)	84(9.8)	
	Wife has college degree, husband not	67(6.8)	54(9.5)	75(8.7)	
Couple gender role attitude	Both traditional	246(24.8)	126(22.2)	130(15.1)	X^2 = 33.59***
	Both egalitarian	376(37.9)	224(39.5)	403(47.0)	
	Husband traditional, wife not	310(31.3)	171(30.2)	266(31.0)	
	Wife traditional, husband not	60(6.0)	46(8.1)	59(6.9)	
Couple owns home	Yes	415(41.8)	284(50.1)	461(53.7)	X^2 = 27.38**
	No	577(58.2)	283(49.9)	397(46.3)	
Living space (in *pyung*)		18.9(5.8)[a]	22.4(7.3)[b]	23.6(7.5)[c]	F = 115.63***

*p<.05. **p<.01. ***p<.001.
1) Superscripts (a, b, c) indicate that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post-hoc Scheffé contrast.

이 식에서 첫 번째 항 ($\hat{\beta}_{0.2014}-\hat{\beta}_{0.2004}$)는 상수로서 관찰되지 않은 변수의 차이가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항은 2004년과 2014년 독립변수 $\overline{X}_1$의 영향력의 차이($\hat{\beta}_{1.2014}-\hat{\beta}_{1.2004}$)가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항은 2004년과 2014년 독립변수 $\overline{X}_2$의 영향력의 차이($\hat{\beta}_{2.2014}-\hat{\beta}_{2.2004}$)가 가사노동시간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도를 2004년과 2009년, 2009년과 2014년으로 5년씩 나누어 동일하게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TATA 1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을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의 평균나이는 31.2세에서 33.2세로 약 2세가량 증가하였고(F=74.00, p<.001), 남성도 33.9세에서 35.5세로 약 1.6세 증가하였다(F=36.84, p<.001). 2004년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비율이 50%였으나, 2014년에는 80%로 늘었고(X^2=179.17, p<.001), 동 기간 동안 전문대이상 남성의 비중은 60%에서 81%로 늘었다(X^2=101.77, p<.001).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여성이 과반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2014년에 이르면 78%의 여성들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고하였다(X^2=20.69, p<.001). 2004년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의 비율이 56%로 과반수이상이었으나, 2014년에는 그 비율이 역전되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유한 남성의 비율이 54%로 더 많아졌다(X^2=18.18, p<.001). 취업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X^2=9.54, p<.01), 10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특히 주당근로시간은 12-13시간 정도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남성의 주당근로시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감소하였다(F=6.97, p<.001). 2004년에는 약 41만원 수준이던 취업여성의 월평균소득이 2014년에는 약 78만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였고(F=32.19, p<.001), 남성도 마찬가지로 264만원에서 315만원으로 올랐다(F=58.48, p<.001).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여성들 중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X^2=15.04, p<.001).

<Table 2>에서 조사대상가구의 특성을 보면,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남편이 홀로 생계부양자인 가구가 훨씬 많았다. 부부월평균소득은 2004년 304만원에서 2014년 394만원으로 약 30% 상승하였고(F=82.61, p<.001), 부부소득에서 아내의 월평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9.6%에서 2014년에는 15.5%로 늘었다(F=22.21, p<.001). 2004년에는 부부가 모두 고졸이하인 가구에 비해 부부가 모두 전문대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10%p 정도 높았으나, 2014년에 이르면 두 집단 간 차이가 62%p로 커졌다. 2004년에는 부부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25%, 부부가 모두 평등

Table 3. Housework Minutes per Day of Wife and Husband, by Weekend and Year

		1999	2004	2009	2014	*F*	Scheffé
Wife	Weekdays (N=1,633)	224.9	206.1	187.0	192.2	31.89***	a b c c
	Weekend (N=1,081)	221.9	206.6	206.5	199.5	7.61***	a b ab b
	t	.70	-.10	-3.44***	-1.42		
Husband	Weekdays (N=1,633)	11.2	12.0	15.3	16.8	8.10***	a ab bc c
	Weekends (N=1,081)	24.3	31.3	50.5	60.9	59.01***	a ab c d
	t	-7.90***	-10.68***	-11.94***	-15.92***		

*p<.05. **p<.01. ***p<.001.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Wife's Housework Time: Regression Results

	Weekdays			Weekends		
	2004 (*N*=1,153)	2009 (*N*=651)	2014 (*N*=1,057)	2004 (*N*=831)	2009 (*N*=483)	2014 (*N*=659)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Wife's weekly work hours	-1.36*** (.24)	-1.78*** (.28)	-2.59*** (.22)	-.96*** (.27)	-1.10*** (.29)	-.44 (.37)
Husband's weekly work hours	-.00 (.21)	-.34 (.24)	-.02 (.20)	.70** (.26)	-.31 (.31)	-.09 (.36)
Neither wife nor husband has college degree	8.35 (7.21)	15.50 (8.99)	8.24 (10.18)	22.08* (9.07)	-11.55 (10.67)	21.61 (16.90)
Husband has college degree, wife not	5.62 (7.51)	8.24 (11.10)	-17.44 (9.46)	4.61 (9.91)	-7.49 (12.14)	-23.13 (15.19)
Wife has college degree, husband not	-16.06 (11.52)	13.41 (12.30)	-1.47 (10.70)	-9.28 (12.33)	8.49 (15.20)	19.34 (17.37)
Wife's proportion of couple income	-1.49*** (.27)	-.95** (.31)	-.39 (.24)	.01 (.34)	.50 (.38)	-.92* (.37)
Wife & husband hav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15.64* (7.72)	-15.68 (9.54)	-12.20 (8.42)	.94 (9.56)	-4.14 (10.89)	-12.86 (14.01)
Wife has egalitarian / husband ha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3.33 (7.91)	-12.04 (9.64)	6.26 (8.95)	-7.19 (9.45)	6.97 (10.98)	-14.58 (15.20)
Husband has egalitarian / wife ha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1 (12.17)	-32.12** (12.31)	-25.00 (13.62)	-12.28 (13,79)	-14.34 (18.11)	-21.20 (18.85)
Constant	268.39*** (51.62)	271.25*** (48.21)	204.91*** (52.75)	79.73 (60.99)	215.54*** (66.90)	62.21 (94.05)
F	35.26***	35.77***	39.99***	3.74***	4.21***	2.44**
R^2	.3227	.3887	.3538	.0329	.1034	.0624

*p<.05. **p<.01. ***p<.001.
1) *N* : Number of diaries analyzed
2) Reference groups: Wife & husband have college degree, wife & husband hav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3) Controls: Couple's monthly income, wife's age, husband's age, homeownership, living space

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38%였으나, 2014년에 이르면 그 비율이 각각 15%로 감소하고 47%로 증가하여 집단 간 차이가 더 커지게 되었다.

2. 미취학자녀가 있는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추이

<Table 3>에서 첫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모두 감소하였고(F= 31.89, 7.61, p<.001), 반대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F=8.10, 59.01, p<.001). 남녀 모두 가사노동시간 변화에 있어서 서구와 같은 변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 M. Bianchi et al., 2000; K. Fisher et al., 2007; J. Gimenez-Nadal & A. Sevilla, 2012; J. L. Hook, 2006; M. Y. Kan et al., 2011; L. C. Sayer et al., 2004; O. Sullivan et al., 2014).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주중과 주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Husband's Housework Time: Regression Results

	Weekdays			Weekends		
	2004 (*N*=1,153)	2009 (*N*=651)	2014 (*N*=1,057)	2004 (*N*=831)	2009 (*N*=483)	2014 (*N*=659)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Wife's weekly work hours	.10 (.07)	.30** (.12)	-.11 (.11)	.15 (.13)	-.07 (.20)	-.19 (.23)
Husband's weekly work hours	-.24*** (.07)	-.21* (.10)	-.42*** (.11)	-.21 (.17)	-.77** (.26)	-.68** (.23)
Neither wife nor husband has college degree	-1.35 (2.60)	-.28 (3.66)	-9.66** (3.11)	-8.77 (7.09)	-19.01* (9.43)	-29.76*** (9.28)
Husband has college degree, wife not	-3.08 (2.18)	-2.71 (3.73)	-2.18 (4.99)	-8.36 (6.08)	-4.34 (11.63)	-30.15*** (8.70)
Wife has college degree, husband not	-5.01 (2.66)	-1.69 (4.40)	-3.11 (3.62)	-11.78 (7.32)	-8.82 (10.69)	-15.41 (8.73)
Wife's proportion of couple income	.05 (.08)	-.08 (.12)	.19 (.14)	.01 (.14)	.09 (.25)	.13 (.24)
Wife & husband hav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49 (1.99)	-2.79 (3.63)	1.67 (3.78)	5.04 (4.54)	2.16 (10.09)	-15.19 (10.26)
Wife has egalitarian / husband ha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60 (2.25)	-3.32 (3.88)	-1.93 (3.87)	3.70 (5.42)	2.60 (10.54)	-23.65* (10.53)
Husband has egalitarian / wife ha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2.76 (4.23)	-2.31 (4.67)	-.11 (5.04)	-4.53 (6.42)	3.86 (13.76)	-28.31* (12.70)
Constant	32.23 (18.09)	25.06 (20.48)	76.10** (27.99)	31.07 (32.24)	20.13 (48.23)	59.98 (64.01)
F	1.85*	1.82*	1.96**	2.83***	3.32***	4.54***
R^2	.0329	.0490	.0463	.0561	.0988	.0926

*p<.05. **p<.01. ***p<.001.

1) *N* : Number of diaries analyzed

2) Reference groups: Wife & husband have college degree, wife & husband hav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3) Controls: Couple's monthly income, wife's age, husband's age, homeownership, living space, employee, occupation (clerical, professional/managers, service/sales, agriculture/manufacturing/laborer

말간 차이가 없고, 주말에 비해 주중에 약간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주중에 비해 주말에 더 길고 증가속도도 빨랐다. 이는 2004년부터 시행된 이후 확대된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가 기혼남성의 주말 시장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주말에 가족시간으로 가용한 시간자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가사노동시간 관련요인 변화

1)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관련요인 변화

조사연도별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주중에는 모든 조사연도에서 본인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2014년으로 올수록 커졌다(b=-1.36, -1.78, -2.59, p<.001). 주말에는 2004년과 2009년에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였으나(b=-.96, -1.10, p<.001), 2014년에는 이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나 부부의 교육수준은 주중 아내의 가사노동시간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2004년 주말에는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었고(b=.70, p<.01), 부부가 모두 전문대이상인 가구에 비해 부부가 모두 고졸이하인 가구의 아내가 주말에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다(b=22.08, p<.05). 주중에는 2004년과 2009년에 아내의 소득비중이 클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였고(b=-1.49, p<.001, b=-.95, p<.01), 주말에는 2014년에만 아내의 소득비중이 클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b=-.92, p<.05).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주중에만 아내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2004년에는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가구의 아내보다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한 가구의 아내가 하루 15분 정도 가사노동을 더 많이 했고(b=15.64, p<.05), 2009년에는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가구의 아내보다 아내는 전통적이지만 남편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고한 가구의 아내가 약 32분 정도 가사노동을 적게 했다(b=-32.12, p<.01).

Table 6. Decomposition of 2014-2004 Changes in Wife's Daily Minutes of Housework

	Weekdays				Weekends			
Average minutes in 2014	192.20				199.50			
Average minutes in 2009	186.98				206.48			
Average minutes in 2004	206.08				206.56			
2004 - 2009 change	-19.10***				-.08			
2009 - 2014 change	5.22				-6.98			
	2004 - 2009 change				2009 - 2014 change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Minutes	%	Minutes	%	Minutes	%	Minutes	%
Weekdays total	-7.60*	40	-11.50***	60	-5.77	-110	11.00	210
Wife's weekly work hours	-1.26	17	-5.66	49	1.51	-26	-10.09	-92
Husband's weekly work hours	.00	0	-17.69	154	.31	-5	16.27	148
Both have college degree	.04	-1	-5.21	45	-1.74	30	8.60	78
Neither has college degree	-1.17	15	-.53	5	-.61	11	.47	0
Husband has college degree, wife not	.05	-1	-1.21	11	.07	-1	-1.39	-13
Wife has college degree, husband not	-.59	8	1.99	-17	-.09	2	-.24	0
Wife's proportion of couple income	-3.67	48	6.45	-56	-3.30	57	8.73	79
Bo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4	-2	4.46	-39	-1.17	20	-1.07	-10
Both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13	-2	-4.63	40	-.05	1	-1.78	-16
Husband traditional, wife egalitarian	.02	0	1.25	-11	.08	-1	3.48	32
Wife traditional, husband egalitarian	-.15	2	-1.09	9	.43	-7	-.01	0
Controls	-1.14	16	17.43	-151	-1.21	19	59.09	540
Constant			-7.06	61			-71.06	-646
Weekends total	-2.33	2,912	2.25	-2,812	7.56*	-108	-14.54	208
Wife's weekly work hours	-1.59	68	-1.98	-88	1.72	23	8.42	-58
Husband's weekly work hours	-.79	34	-53.98	-2,399	.59	8	11.61	-80
Both have college degree	-.65	28	3.99	177	.37	5	-5.03	35
Neither has college degree	-2.35	100	-5.57	-248	.98	13	2.57	-18
Husband has college degree, wife not	-.01	0	-.67	-30	.19	3	-2.10	14
Wife has college degree, husband not	-.18	8	2.15	96	.13	2	.37	-3
Wife's proportion of couple income	.03	-1	5.97	265	1.67	22	-22.01	151
Bo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09	4	-.38	-17	-.17	-2	1.46	-10
Both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12	-5	-2.66	-118	-.09	-1	.26	-2
Husband traditional, wife egalitarian	.02	0	3.98	177	-.17	-2	-3.72	26
Wife traditional, husband egalitarian	-.05	2	-.28	-12	-.07	-1	.19	-1
Controls	3.21	-138	-78.89	-3,506	2.41	30	148.96	1,024
Constant			130.57	5,803			-155.52	1,070

*p<.05. ***p<.001.

1) Controls: Couple's monthly income, wife's age, husband's age, homeownership, living space

2)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관련요인 변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주중에는 모든 조사연도에서 본인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줄었고(b=-.24, -.42, p<.001, b=-.21, p<.05), 주말에는 2009년과 2014년에 이러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b=-.77, -.68, p<.01). 주중에는 2009년에만 아내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었고(b=.30, p<.01), 아내의 주당근로시간의 영향은 다른 조사연도나 주말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4년에는 부부가 전문대이상인 가구의 남편에 비해 부부가 고졸이하인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주중에는 약 10분 정도 짧았고(b=-9.66, p<.01), 주말에는 30분 정도 짧았다(b=-29.76, p<.001). 2009년 주말에는 부부가 모두 전문대이상인 가구의 남편에 비해 남편만 전문대이상이고 아내는 고졸이하인 가구의 남편이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약 19분 적었으나(b=-19.01, p<.05), 2014년이 되면 이 격차가 30분으로 벌어졌다(b=-30.15, p<.001).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2014년 주말에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

이 있었는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가구의 남편에 비해 남편은 전통적이고 아내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갖는 가구의 남편이 주말에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약 24분 짧았고(b=-23.65, p<.05), 남편은 평등하고 아내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가구의 남편이 주말에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약 28분 적었다(b=-28.31, p<.05).

4. 조사연도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여기서는 회귀분석 결과에서 아내와 남편의 주당근로시간, 아내의 소득비중, 부부의 교육수준,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있었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2004년과 2009년, 2009년과 2014년으로 5년씩 나누어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독립변수의 평균값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인 특성효과와 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인 계수효과로 분해하였고, 각 독립변수가 개별적으로 특성효과와 계수효과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세부분해를 실시하였다.

1)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분해

2004년과 2009년,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발생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차이에 대해 분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주중에는 약 19분 감소하였고, 주말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주중 19분의 감소분 가운데 40%는 특성효과에 의한 차이였고, 나머지 60%가 계수효과에 의한 차이로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지면서 주중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부분이 더 컸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아내의 소득비중이 늘어난 것이 가사노동시간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계수효과에서는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아내의 주중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이는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늘어나게 하는 정적 영향이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내의 주당근로시간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과 부부가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강해진 것 또한 계수효과에 의한 감소분에 기여한 바가 컸다.

2009년과 2014년 사이에는 주중에 가사노동시간이 약 5분 증가하였고, 주말에는 약 7분 감소하였다. 주중의 증가분과 주말의 감소분 모두 계수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에는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아내의 소득비중이 늘었고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부부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6분 정도 줄었어야 했지만,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더 강해졌고, 동시에 부부가 고학력일 때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효과와 아내의 소득비중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계수효과로 인하여 가사노동시간이 11분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말이 되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발생한 독립변수의 평균값 및 분포 차이가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증가에 기여하는 등 주중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계수효과에서 아내의 소득비중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강화되면서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15분 줄어들도록 함으로써, 주말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7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분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에 대해 세부분해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남편의 주중 가사노동시간은 약 3분 증가한 것에 비해 주말에는 19분이 증가하였고, 모두 계수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주중에는 아내의 주당근로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의 부적 영향이 약화된 것이 증가분에 기여하였다. 주말에 늘어난 가사노동시간 19분 가운데 약 3분은 부부가 전문대이상인 고학력 부부의 비중이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였고, 계수효과로 늘어난 16분은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이 달라진 결과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강화됨으로써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30분 감소했어야 하지만, 통제변수들의 계수효과가 이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남편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주중에는 약 1분, 주말에는 약 10분 증가하였다. 주중에 증가한 1분은 모두 계수효과에 의한 부분으로서, 아내의 소득비중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된 데에 따른 결과였다. 주말에 늘어난 가사노동시간 10분 가운데 63%는 특성효과, 37%는 계수효과에 기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전문대이상의 고학력 부부가 증가하고 고졸이하의 저학력 부부가 감소한 것이 기여한 부분이 컸다. 계수효과에서는 부부가 전문대이상일

Table 7. Decomposition of 2014-2004 Changes in Husband's Daily Minutes of Housework

	Weekdays				Weekends			
Average minutes in 2014	16.82				60.94			
Average minutes in 2009	15.45				50.47			
Average minutes in 2004	12.03				31.26			
2004 - 2009 change	3.42*				19.21***			
2009 - 2014 change	1.36				10.46*			
	2004 - 2009 change				2009 - 2014 change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Minutes	%	Minutes	%	Minutes	%	Minutes	%
Weekdays total	.41	12	3.00*	88	-.12	-8	1.48	108
Wife's weekly work hours	.09	22	2.63	88	-.23	192	-5.20	-351
Husband's weekly work hours	.24	59	1.55	52	.21	-175	-10.85	-733
Both have college degree	.19	46	-.63	-21	.23	-192	1.85	125
Neither has college degree	-.13	-32	-.02	-1	-.09	75	-.68	-46
Husband has college degree, wife not	-.01	-2	-.14	-5	.11	-92	.31	21
Wife has college degree, husband not	-.10	-24	.22	7	.01	-8	.09	6
Wife's proportion of couple income	.12	29	-1.51	-50	-.28	233	4.22	285
Bo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01	2	.58	19	-.17	142	-.30	-20
Both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00	0	.09	3	-.06	50	1.17	79
Husband traditional, wife egalitarian	.01	2	-.06	-2	-.03	25	-.20	-14
Wife traditional, husband egalitarian	.08	20	-.23	-8	.00	0	.01	1
Controls	-.09	-22	11.06	269	.18	-150	-36.7	-2,460
Constant			-10.54	-351			47.46	3,207
Weekends total	3.48*	18	15.73***	82	6.64*	63	3.82	37
Wife's weekly work hours	.24	7	-3.06	-19	.10	2	-1.59	-42
Husband's weekly work hours	.23	7	-30.19	-195	1.47	22	4.43	116
Both have college degree	1.08	31	.47	3	1.12	17	7.66	200
Neither has college degree	.20	6	-1.97	-13	1.21	18	.00	0
Husband has college degree, wife not	.03	1	.64	4	-.15	-2	-1.39	-36
Wife has college degree, husband not	-.06	-2	.33	2	-.01	0	.41	11
Wife's proportion of couple income	.03	1	.98	6	.30	5	.67	18
Bo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02	1	-.24	-2	.13	2	2.99	78
Both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09	3	-1.55	-10	.00	0	.73	19
Husband traditional, wife egalitarian	-.02	-1	-.71	-5	-.01	0	-2.22	-58
Wife traditional, husband egalitarian	-.04	-1	.53	3	.01	0	-1.04	-27
Controls	1.68	47	58.00	374	2.47	36	-15.16	-397
Constant			-7.50	-48			8.33	218

*p<.05. ***p<.001.

1) Controls: Couple's monthly income, wife's age, husband's age, homeownership, living space, employee, occupation (clerical, professional/managers, service/sales, agriculture/manufacturing/laborer

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강해지고,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약화된 것에 의한 증가분이 가장 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첫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관련요인들의 종단적인 평균 변화와 영향력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관찰된 변화 추이가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를 예측해보고, 향후 예상되는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추이를 지속시키거나 바꾸기 위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효율적인 개입을 위한 단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아내와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은 모든 조사연도에서 주중과 주말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시간가용성관점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 M. Bianchi et al., 2000; R. Connelly & J. Kimmel, 2009; K. Eun, 2009; M. Fuwa, 2004; S. Heo, 2008). 그러나 성별과 주중·주말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우선 아내의 주당근로시간은 모든 조사연도에서 주중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영향의 강도는 2014년으로 갈수록 강해졌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여성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취업패턴이 남성과 유사해졌으며,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에 성평등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J. Park, 2013; S. Won, 2014) 여성의 근로시간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내의 근로시간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M. Fuwa, 2004). 이에 반해 주말에는 2004년과 2009년에는 아내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다가 2014년이 되면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의 아웃소싱 가능성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취업여성은 주말을 주중에 밀린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J. Zuzanek & B. J. Smale, 1999), 가사노동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가족내 시간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S. Gupta & M. Ash, 2008; S. Kim & E. Kim, 2007). 주당근로시간만으로는 주말에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근무시간 외 야간근무를 하거나 주말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L. Craig & J. E. Brown, 2014). 만약 취업여성이 2004년부터 꾸준히 가사노동을 아웃소싱하였다면[1], 2014년에는 아웃소싱이 가능한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아웃소싱하였기 때문에 남은 가사노동은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것들일 수 있다(A. Killewald & M. Gough, 2010). 그렇다면, 가사노동시간은 주당근로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은 모든 조사연도에서 본인의 주중 가사노동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004년 주말에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주당근로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2004년에는 남편이 주당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2004년은 주5일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해로서 주말 휴일이 자리잡지 못한 현실에서 주말근무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제한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내의 소득비중은 본인의 주중 가사노동시간에만 영향을 미쳤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는 관련이 없었다. 2004년과 2009년에는 아내의 소득비중이 클수록 주중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짧았으나,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그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2014년에는 아내의 소득비중의 영향이 사라졌다. 아내의 소득비중과 가사노동시간 사이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S. M. Bianchi et al., 2000; S. Gupta, 2007; S. Gupta & M. Ash, 2008; S. Kim & E. Kim, 2007), 이러한 부적 관련성이 2014년이 되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앞서 사용했던 아웃소싱의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여성은 본인의 소득을 이용하여 가사노동을 아웃소싱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선행연구의 논의(S. Gupta, 2007)를 따르자면, 아웃소싱할 가사노동이 많았던 2004년에는 아내의 소득비중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았으나, 이후 아웃소싱하는 가사노동이 늘어나면서 아내의 소득비중의 영향이 감소하다가 2014년에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소득비중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내의 소득비중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끌어내는 협상에서 유리한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가사노동의 아웃소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이에 반해, 아내의 소득비중이 주말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이 2014년에만 나타났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2014년이 되면서 아내의 소득비중이 늘어나고(<Table 2> 참조)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되어감에 따라(S. Won, 2014) 아내의 소득비중이 갖는 협상력이 커졌을 것이다. 또한 주5일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남성의 주말 시장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남편은 주말에 가사노동에 사용할 시간자원을 얻었고, 그 결과 아내가 소득을 가지고 가사노동을 줄이는 협상을 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일 수 있다(M. Fuwa, 2004; H. Stier & N. Lewin-Epstein, 2007).

셋째, 부부의 교육수준은 아내보다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더 크게 작용하였으며,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영향을 미쳤고, 2014년으로 올수록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부부 교육수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과는 달리, 2014년으로 올수록 남편

1) 한 예로, M. Choi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외식비는 1990년 5만 원에서 2014년 37만 원으로 연평균 8.7% 상승하였고, 이는 가계소득이 10만원 증가한 데 대해 외식비가 8,500원 증가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1990년 도시가계의 외식비는 식료품비의 약 1/4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외식비가 식료품비를 초과하였고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교육수준의 영향이 더 강해졌다.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부부 교육수준의 영향은 2004년 부부가 고졸이하인 가구에 비해 부부가 전문대이상인 가구에서 아내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었던 것이 유일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성역할 태도를 매개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 Sullivan, 2010). 2004년에는 남성의 56%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고하는 등(<Table 1> 참조) 2014년과 비교한다면 사회전반에 평등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고등교육을 통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성역할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에는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M. Fuwa, 2004; K. Knusden & K. Wærness, 2008).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성역할 태도를 매개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아니라, 여성취업을 통한 경로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부부가 모두 고학력인 가구에서 맞벌이 비율이 높고[2],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가 주말에 밀린 가사노동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전문대이상인 가구에서 주말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부부 교육수준의 영향은 2014년에 가까울수록 강해졌다. 주중에는 2009년까지만 해도 부부가 고졸이하인 가구와 부부가 전문대이상인 가구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차이가 없었으나 2014년이 되면서 격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벌어졌고, 주말에는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학력간 격차가 2014년에는 더 커졌다. 이는 점차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지닌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고학력 동질혼도 늘어나고, 부부가 고등교육을 받았을 경우 평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려는 성향이 최근 가사노동시간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O. Sullivan et al., 2014). 특히 여성의 빠른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늘어난 취업률과 임금, 그리고 더 좋은 직장지위와 직종으로의 진출은 여성의 가구내 협상력을 높여서 부부가 고학력인 집단 안에서 남성이 가사노동참여를 늘리도록 했을 것이다(S. M. Bianchi et al., 2000). 다만, 주중에는 근무시간이 이러한 교육수준의 영향이 발현되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말에는 보다 빠르게 교육수준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2014년에는 교육수준이 가사노동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2014년 주말에는 부부가 모두 전문대이상인 가구에 비해 남편은 전문대이상이고 아내는 고졸이하인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모두 적었다. 2014년에만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남녀 모두 전문대이상의 고학력자가 80%가 넘는 현실에서는 고졸이하의 학력이 실제보다 더 열등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주중에만 영향을 주었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주말에만 영향을 미쳤다. 2004년에는 부부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할 때 아내의 주중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었는데, 이 결과는 부부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구내 공평한 가사노동분담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J. Baxter et al., 2008; M. Evertsson, 2014; T. N. Greenstein, 1996; M. Y. Kan, 2008; M. Nordenmark, 2004). 2004년에는 부부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공평한 가사노동분담이라는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서, 2004년 사회의 전반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부부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독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던 보다 명확한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부부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아내의 성역할 태도만 전통적이고 남편의 성역할 태도는 평등할 경우 주중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적었는데,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본인의 성역할 태도보다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M. Evertsson, 2014). 또한 2004년과 비교한다면, 2009년에는 남편이 본인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 평등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고 부부간에 시간사용의 상호의존성도 높아졌음을 암시한다.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2014년 주말에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의 제약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자원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주말에 남편들이 본인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4년에는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가구에 비해 남편은 전통적이고 아내는 평등한 성

2) 실제로 2004년에는 학력이 고졸이하인 여성의 27.2%가 취업여성이었고, 학력이 전문대이상인 여성의 34.4%가 취업여성으로,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 그리고 아내는 전통적이고 남편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 남편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더 짧았다. 이처럼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불일치하는 가구에 비해 부부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일치하는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던 이유에 대한 해석의 단초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가구의 비중은 2004년 25%에서 2014년 15%로 감소한 반면, 남편은 전통적/아내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구와, 반대로 아내는 전통적/남편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에는 여성의 78%, 남성의 54%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고하는 등(<Table 1> 참조), 사회 전반에서 과거에 비해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J. Park, 2013; S. Won, 2014). 그렇다면 사회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우호적이었던 과거나 사회적으로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지하는 현재까지도 남편은 전통적/아내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구와 아내는 전통적/남편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유사하다는 것은 이 집단에 속한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주변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강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아내의 강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표출하는 것에 대한 주위의 거부감과 비난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M. Fuwa, 2004; J. L. Hook, 2006), 이를 감수하고 표출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매우 강할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하여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아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지난 10년간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데에는 아내의 소득비중과 전문대이상의 고학력 부부가 늘어난 것과, 아내의 소득비중과 주당근로시간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강해졌고,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약해졌으며, 부부가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강화된 것이 기여한 부분이 컸다. 이처럼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도록 견인한 요인을 보면, 앞으로도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내의 소득비중이 늘어난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임금수준이 높아진 역사적인 산물로서 앞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아지거나, 취업률이 감소하고, 성별 임금격차가 더 커지지 않는 한 아내의 소득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대학졸업이상의 고학력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부가 전문대이상의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을 보유한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아내의 주당근로시간과 소득비중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분해분석 결과는 제안하고 있다. 앞서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아내의 주당근로시간과 소득비중의 부적 영향이 강해진 배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고 임금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취업패턴이 남성과 유사해진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사회전반에 성평등 의식이 확산된 것과 같은 문화적인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앞으로 사회가 변화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면 이 두 변수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강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만약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면 아내의 주당근로시간과 소득비중의 영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은 전문대이상인 고학력 부부는 늘고 고졸이하인 부부는 줄었고,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감소하였으며,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것과 아내의 소득비중과 주당근로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된 것에 기인하였다. 부부가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도록 하는 효과가 강력해진 것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교육수준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은 적지만,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은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환경에 따라 다시 늘어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관용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향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실제로 2004년에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기술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개입은 남편 본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는 물론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감소에 장애가 되고 있는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아내의 주당근로시간과 소득비중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늘릴 수 있다면, 부부간 가사노동시간 배분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부관계와 거시적인 환경 조성은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

을 담고 있다. 첫째, 시간가용성관점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결과는 시간지원의 형태로 제공되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 효용성을 방증한다. 시간지원은 가용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이며(D. Song & S. Jung, 2013), 실증연구에서도 시간지원은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S. Kim & K. Hong, 2014). 장시간 근로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조직문화는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족 양립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S. Heo, 2009). 따라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겠지만, 관행이나 문화가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책이나 제도가 개인의 인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H. Ingram, A. L. Schneider, & P. DeLeon, 2007)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간지원정책의 시행이 유효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이 지난 10년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난 데에 기여한 바를 고려한다면, 아버지할당제와 같이 남성이 수혜자인 시간지원정책은 앞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둘째, 이전 조사연도에 비해 2014년에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근로시간 외에도 교육수준이나 성역할 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정책적인 개입의 여지가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데에는 남편의 주당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아내의 소득비중이 늘어났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약화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과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가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해분석 결과는 이러한 변화가 직접 작용하여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늘린 부분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주당근로시간, 아내의 소득비중, 교육수준과 성역할 태도의 영향이 달라지면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2014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주당근로시간, 아내의 소득비중,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에서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교육수준은 높아질 만큼 높아져서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성역할 태도 또한 외적인 개입으로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성편의 주당근로시간을 줄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과거에 비해 앞으로 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내용이나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들은 가사노동에서는 음식준비(요리)와 같은 일상적인 가사노동에서 성별 시간사용의 격차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고(J. Baxter, 2002; S. M. Bianchi et al., 2000; J. L. Hook, 2010) 보고하며 가사노동의 성격에 따라 성별 변화의 추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일, 남성의 일, 성중립적인 일로 규정된 가사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예측변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T. N. Greenstein, 1996; A. Kroska, 2004). 따라서 가사노동을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변화의 추이나 관련요인을 살펴본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으로 분석을 제한하였으나, 시장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개인유지시간, 교제 및 여가시간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가용성관점, 상대적자원관점, 성역할태도관점을 대표하는 독립변수와 여러 통제변수를 사용하였으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변수들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모형에 투입하지 않았으나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투자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의미인데, 미취학자녀의 수나 연령 같은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해분석은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B. Jann, 2008). 따라서 보다 면밀한 분해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변수의 투입이 긴요하며, 생활시간조사에서 측정한 변수 가운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가져온 동력을 파악하고자 아내와 남편의 주당근로시간, 아내의 소득비중, 부부의 교육수준,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종단적으로 이 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는 간과되어 왔던 거시적인 맥락의 영향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2014년까지의 종단적인 변화와 관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실과 연구간 시간차 없이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가사노동시간 변화추이를 예측해보고, 시의적절한 정책제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REFERENCES

Baxter, J. (2002). Patterns of change and stability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Australia, 1986-1997. *Journal of Sociology, 38*(4), 399-424.

Baxter, J., Hewitt, B., & Haynes, M. (2008). Life course transitions and housework: Marriage, parenthood, and time o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2), 259-272.

Berik, G., & Kongar, E. (2013). Time allocation of married mothers and fathers in hard times: the 2007–09 US recession. *Feminist Economics, 19*(3), 208-237.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Bolzendahl, C. I., & Myers, D. J. (2004). Feminist attitudes and support for gender equality: opinion change in women and men, 1974-1998. *Social Forces, 83*(2), 759-789.

Brewster, K. L., & Padavic, I. (2000). Change in gender ideology, 1977-1996: The contribution of intercohort change and population turnov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477-487.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u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Bryant, A. N. (2003). Changes in attitudes toward women's roles: Predicting gender-role traditionalism among college students. *Sex Roles, 48*(3-4), 131-142.

Cha, Y., & Thébaud, S. (2009). Labor markets, breadwinning, and beliefs how economic context shapes men's gender ideology. *Gender & Society, 23*(2), 215-243.

Cho, S.-K. (1998). Economic crisis, women's work and employment politic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14*(2), 5-22.

Choi, M.-Y., Mo, S.-L., & Lee, K.-B. (2015). An analysis of eating out expenditure behavior of urban households by decile grou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820-7830.

Cohen, P. N. (1998). Replacing housework in the service economy: Gender, class, and race-ethnicity in service spending. *Gender and Society, 12*(2), 219-231.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208-1233.

Connelly, R., & Kimmel, J. (2009). Spousal influences on parents' non-market time choic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7*(4), 361-394.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Craig, L., & Bittman, M. (2008). The incremental time costs of children: An analysis of children's impact on adult time use in Australia. *Feminist Economics, 14*(2), 59-88.

Craig, L., & Brown, J. E. (2014). Weekend work and leisure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Who misses ou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4), 710-727.

Crompton, R., Brockmann, M., & Lyonette, C. (2005). Attitudes, women's employment and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r: A cross-national analysis in two-wave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9*(2), 213-233.

Davis, S. N., & Greenstein, T. N. (2009). Gender ideology: Component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1), 87-105.

Davis, S. N., & Greenstein, T. N. (2013). Why study housework? Cleaning as a window into power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Theory and Review, 5*(2), 63-71.

Eun, K.-S. (2009). Household division of labor for 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3), 145-171.

Evertsson, M. (2014). Gender ideology and the sharing of housework and child care in Sweden. *Journal of Family Issues, 35*(7), 927-949.

Fisher, K., Egerton, M., Gershuny, J., & Robinon, J. (2007). Gender convergence in the American Heritage Time Use Study (AHT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1), 1-33.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Fuwa, M., & Cohen, P. N. (2007). Housework and social policy. *Social Science Research, 36*(2), 512-530.

Geist, C., & Cohen, P. N. (2011). Headed toward equality? Housework chan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4), 832-844.

Gimenez-Nadal, J., & Sevilla, A. (2012). Trends in time allocation: A cross-country survey. *European Economic Review, 56*(6), 1338-1359.

Greenstein, T. N. (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585-595.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22-335.

Gupta, S. (2007). Autonomy, dependence, or dis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earnings a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2), 399-417.

Gupta, S., & Ash, M. (2008). Whose money, whose time? A non-parametric approach to modelling time spent on housework in the United States. *Feminist Economics, 14*(1), 93-120.

Heo, S.-Y. (2008). Research on time use for housework of women and men in double income households. *Korean Women's Studies, 24*(3), 177-210.

Hook, J. L.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Hook, J. L. (2010). Gender inequality in the welfare state: Sex segregation in housework, 1965-2003.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5), 1480-1523.

Hyun, J. E. (2014). The analysis on change of childcare policy and female time alloc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1), 207-231.

Ingram, H., Schneider, A. L., & DeLeon, P. (2007).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 93-126.

Jann, B. (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8*(4), 453-479.

Ji, M. W., & Cho, M. S. (2014). Substitutability of spousal housework time in dual-earner households: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labor market time.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11*(1), 1-31.

Johnston, D. D., & Swanson, D. H. (2006). Constructing the "good mother": The experience of mothering ideologies by work status. *Sex Roles, 54*(7), 509-519.

Kan, M. Y. (2008). Does gender trump money? Housework hours of husbands and wives in Britai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2*(1), 45-66.

Kan, M. Y., Sullivan, O., & Gershuny, J. (2011). Gender convergence in domestic work: Discerning the effects of interaction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from large-scale data. *Sociology, 45*(2), 243-251.

Killewald, A., & Gough, M. (2010). Money isn't everything: Wives' earnings and housework time. *Social Science Research, 39*(6), 987-1003.

Kim, S., & Kim, E. (2007). Housework and economic dependency among dual-earner couples in Korea: Economic exchange or gender compens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2), 147-174.

Kim, S. H. (2015). The change of attitudes to gender role according to type of family policies: Focusing on cash, time and service. *Korean Social Policy Review, 22*(1), 285-316.

Kim, S.-H. & Hong, K.-Z. (2014). The combined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21 OECD countries. *Social Welfare Policy, 41*(2), 213-238.

Knusden, K., & Wærness, K. (2008). National context and spouses' housework in 34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1), 97-113.

Kroska, A. (2004). Divisions of domestic work: revising and expanding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25*(7), 900-932.

Lee, S., & Lee, H. (2011). Analysis of time use of double income paid work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5), 81-96.

Nordenmark, M. (2004). Does gender ideology explain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regarding the involvement of women and men in paid and unpaid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3*(3), 233-243.

Park, J. S. (2013). Gauging gender equality in terms of household labor division and gender-role percep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99,* 28-38.

Sayer, L. C.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 285-303.

Schwartz, C. R., & Mare, R. D. (2005). Trends in educational assortative marriage from 1940 to 2003. *Demography, 42*(4), 621-646.

Shelton, B. A., & John, D. (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299-322.

Shin, Y.-J., Ki, J. R., Woo, S. J., & Yoon, J. (2014). *Analysis on childcare behaviors aft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polic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ong, Y,-J. (2011). Changes in parental time spent with childre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2), 45-64.

Stier, H. & Lewin-Epstein, N. (2007). Policy effects on the division of housework.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9*(3), 235-259.

Stickney, L. T., & Konrad, A. M. (2012). Societal institutions and work and family gender-role attitudes. *Organization Management Journal, 9*(4), 236-246.

Song, D.-A. & Jung, S.-Y. (2013). Paradigm shift toward comprehensive family policy.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39,* 145-189.

Sullivan, O. (2010).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s in fathers' domestic labour and child care. *Sociology, 44*(4), 716-733.

Sullivan, O., Billari, F. C., & Altintas, E. (2014). Fathers' changing contributions to child care and domestic work in very low-fertility countries: the effect of educ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5*(8), 1048-1065.

Thornton, A., & Young DeMarco, L. (2001). Four decades of trends in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The 1960s through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1009-1037.

van der Lippe, T., de Ruijter, J., de Ruijter, E., & Raub, W. (2011). Persistent inequalities in time use between men and women: A detailed look at the influence of economic circumstances, policies, and cultur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2), 164-179.

West, C., & Zimmerman, D. H. (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1*(2), 125-151.

Won, S.-Y. (2014). Changes i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y: Focusing on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1996 and 2010.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0*(3), 141-171.

Zuzanek, J. & Smale, B. J. (1999). Life-cycle and across-the-week allocation of time to daily activities. In W. E. Pentland, A. S. Harvey, M. P. Lawton, & M. A. McColl, (Eds.) *Time us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pp. 127-153).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Received: March 15. 2016
☐ Revised: June 2. 2016
☐ Accepted: June 13. 2016